

# “진정한 해제는 대자유인 되는 것”

##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식득주장자(識得 杖子)하면  
 줄탁지기전주봉(寐啄之機箭抽鋒)이니  
 별연빈주찰나분(瞥然賓主刹那分)이라.  
 불식주장자(不識 杖子)라도  
 장두유안명여일(杖頭有眼明如日)하여  
 한래한현호래호현(漢來漢現胡來胡現)이라.

이 주장자 진리를 알 것 같으면  
 줄탁의 기쁨은 화살과 칼날을 잡음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손과 주인을 가림이로다.  
 이 주장자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장자 머리 위에 해와 같은 밝은 눈이 있어서  
 한인(漢人)을 만나면 한인을 나투고,  
 호인(胡人)을 만나면 호인을 나투이로다.

금일은 어언 여름 석달 안거를 마치는 하안거 해제  
 일이라. 결제에 임했던 기상과 기개로 삼복더위를  
 잊고 각고의 정진에 몰두해서 본분사를 해결했다면  
 금일이 진정한 해제가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해제가 일시에 결제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보아야 함이로다.  
 진정한 해제란 화두를 타파하여 자기의 본성을 알  
 게 될 때 천하를 횡행하는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마음을 담금질하여 대오전성  
 의 각오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해제가 되었다고  
 자랑을 지고 이산 저산을 유랑을 다니듯이 정진없이  
 다녀서는 아니 될 것이며 화두를 걸망에 넣어두고 허

깨비처럼 행각을 떠나서도 아니 될 것이다.

그렇게 허세월만 보내서는 대도를 이루기가 불  
 가능하니 화두를 타파하여 선지식계 인가받는 날이  
 해제가 다짐하고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이 혼신의 힘  
 으로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야 함이로다.

화두를 챙김에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걸음걸음마다 호흡호흡마다 화두를 여  
 의지 않고 간절한 의심으로써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  
 기를 흐르는 물과 같이 끊어짐이 없도록 써뉘어야 할  
 것이로다.

이렇게 일념이 되도록 노력하다보면 문득 참의심  
 이 돈발(頓發)하여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  
 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해결되어 불초의 백  
 천공안(百千公安)을 한고쟁이에 꿰어 버리게 됩니  
 다. 그러면 누가 어떤 물음을 던지더라도 석화전광  
 (石火電光)으로 척척 바른 답을 내놓게 되고, 제불제  
 조(諸佛諸祖)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살림살이를 수  
 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억만년이 다하도록 깨달은 삼매의 낙  
 을 누리고 염라대왕이 잡으려 온다 해도 보이지 않  
 으니 잡아 갈수가 없음이로다.

석일(昔日)에 조주 선사께서 행각 차에 황벽 선사  
 회상에 들르시니, 황벽 선사께서 조주 선사 오시는  
 것을 보시고 방장실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셨다.  
 이에 조주 선사께서 법당에 들어가서,  
 “救火救火(구화구화)라!”  
 “불이야! 불이야!”



하시니, 황벽 선사께서 문을 열고 나와서 조주 선  
 사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道道(도도)하라!”  
 “일러라! 일러라!”

이에 조주 선사께서  
 “적과후장궁(賊過後張弓)이라.”  
 “도적이 지나간 후에 활을 쏘이로다.”라고 하셨다.

일일에 조주 선사께서 임제사(臨濟寺)를 방문하여  
 발을 씻고 있는 차에, 임제 선사께서 다가와 물으시  
 기를,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시니, 조주 선사께서

“마침 노승이 발을 씻는 중이니라.”  
 하고 대답하셨다. 이에 임제선사께서 가만히 다가가  
 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거늘, 조주 선사께서 “알  
 면 바로 알 것이지, 되잖아 무엇 하려는고?” 하심에  
 임제 선사께서 팔을 흔들며 가버리시니, 조주 선사  
 께서 말씀하셨다.

“30년간 행각하다가 오늘에야 처음으로 주각을  
 잘못 내렸다.”

사회대중은 조주 선사를 알겠는가?

수구투정투저지안(須具透頂透底之眼)하여  
 처처상봉선지식(處處相逢善知識)하니  
 당기일구전고회(當機一句千古輝)로다.

조주 선사는 모름지기 위를 뚫고 아래를 뚫어보는  
 그러한 눈을 갖추어서 처처에 선지식을 상봉하니 기  
 례에 다다른 일구가 천고(千古)에 빛남이로다.

대중은 黃檗(황벽) 선사를 알겠는가?

용호상박 전신회피난(龍虎相撲에 全身迴避難)이  
 라.  
 수연여시(雖然如是)나  
 호수중 정호수(好手中에 更好手)하니  
 천상인간능기기(天上人間能幾幾)나?

용과 범이 서로 부딪힘에 전신을 회피하기가 어려  
 운지라.

비록 이와 같으나  
 능란한 솜씨에 능란한 솜씨를 바치니,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몇몇이나 필요?

대중은 임제 선사를 알겠는가?

임제전기격조고(臨濟全機格調高)라  
 봉두유안변주호(禪頭有眼辨秋毫)로다.  
 소제호포가풍준(蘇除狐兔家風峻)이요  
 변화어룡전화소(變化魚龍電火燒)로다.

활인도살인검(活人刀殺人劍)이여!  
 의천조설이취모(倚天照雪利吹毛)로다.  
 일등령행자미별(一等令行滋味別)이니  
 심분통처시수조(十分痛處是誰遭)오

환희임제마(還喜臨濟麻)이?  
 창천창천(蒼天蒼天)이로다.

임제(臨濟) 선사의 온전한 기쁨은 격조(格調)가 정  
 말로 높고 높을지라, 주장자 머리 위에 눈이 있어서  
 가을철 털꿨을 가림이로다. 야호와 토끼를 쓸어 없  
 애니 가풍이 준결함이요, 변화의 어룡(魚龍)을 번갯  
 불에 사름이로다.

사람을 살리는 칼과 사람을 죽이는 검이여! 하늘  
 을 비껴 번쩍이니 날카로운 취모검이로다.

일등 령(令)을 행함은 그 맛이 특별함이니, 심분(十  
 分) 아픈 곳을 이 누가 알리오, 도리어 임제 선사를  
 알겠는가? 아이고! 아이고! 곡(哭)을 함이로다.

## “수행으로 자신의 업연서 벗어나야”

###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  
 를 이루지 못한 중생은 감각만 윤회의 암  
 흑세계를 헤매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 업  
 연(業緣)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업연은 한번 정해지면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데, 깨침을 얻는  
 과정에 업연이 녹아 없어진 해탈의 상태.  
 즉 선연의 인연 공덕이 무르익어서 그 과  
 보(果報)가 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업연이 다하게 되며, 그 때의 마음을 진여  
 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마음은 본질과 현상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각  
 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인 현상으로 모두 하나로 연결된 진여의  
 본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면에서 마음은 시·공  
 간의 제약 받지 않으며 차별이 없는 절  
 대평등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 어  
 느 낱기연(機緣)으로 수행자가 지금 여기 순  
 간순간의 변화를 놓치지 않을 때, 그 때가  
 바로 영원한 자유로움의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고, 그 경지를 견성성불(見性成佛)  
 이라고 합니다.

도(道)는 하나이지만 도를 증득(證得)하  
 는 방법은 각각 다르니, 아직도 조계산 노



승의 모양다리만 보고는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법문을 듣고도 신심이 동하지 않  
 는 많은 수행자들은 자신의 업연이 스스  
 로를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인지하  
 여야 합니다.

특히 <법화경> ‘안락행품’에도 “한적한  
 곳에 고요히 앉아 마음을 집중하여 닦으  
 면서 안주해 동하지 않는 것을 마치 수미  
 산과 같이 한다.”고 했듯이 수행자들은 해  
 제가 되었다 해도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  
 스님이 영재(永才)스님을 기리는 시(詩)를  
 읊으신 뜻을 살피고, 쉽 없는 정진을 당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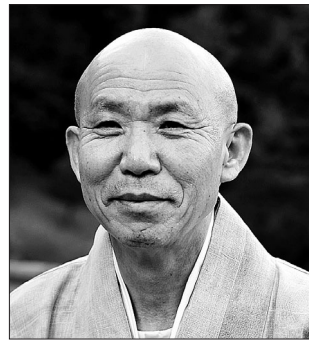
막대기 들고 산을 찾으니 뜻이 깊은데  
 비단이나 금은보화에 마음이 끌릴수가  
 녹림속의 군자들이 증회를 생각마소  
 지옥근본 무엇인가 촌금이 뿌리로세.

## “맑은 가난의 가풍 다시 세웁시다”

###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오늘은 올미년 하안거 해제일입니다.  
 대중은 각자 본분상(本分上)에서 열심히  
 정진하였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 공부한  
 살림살이를 점검(點檢)해 볼 시간입니다.  
 대중은 철저히 가난해 졌습니까? 화두가  
 독로하여 대의단이 타파되어서 탐·진·  
 치 삼독과 일체 번뇌 망상이 다 떨어져 나  
 가서 텅텅 비어 한 물건도 없어져야 반분  
 의 득(半分之得)이 있따할 것입니다. 떨치  
 고 떨쳐서 이 몸과 이 마음마저 다 떨쳐버  
 려서 떨쳐버렸다는 생각마저 떨쳐버려서  
 천하의 가난뱅이가 되어야 진정한 공부인  
 (工夫)이라 할 것입니다. 철저한 가난을  
 체득한 자라야 염라노자의 밥값 계산에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은 번뇌망명이 다 떨어져 나간 수  
 행의 경지를 표현한 말이지만, 수행자에  
 게 있어서 가난은 수행가풍에 있어서 대  
 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곁들이 말  
 씌드립니다. 옛말에 “배고프고 추워야 도  
 닦는 마음이 일어난다(飢寒發道心)”고 하  
 였습니다. 송광사 구산스님께서도 飢寒에  
 發道心한다는 법문을 자주 하셨습니다.  
 밥심이 그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  
 다. 그래서 요즘 서양에서는 “자발적 가  
 난”이란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부자로



풍요롭게 살 수 있지만 일부러 가난하게  
 근검약약하며 정신적이 삶을 추구해 간다  
 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자본주의 폐해가 극에 달한  
 지금에 와서야 “자발적 가난”라는 삶의 태  
 도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 부처님은 2500  
 년 전에 이미 “정빈(淸貧)”의 가풍을 세우  
 셧습니다. 청빈이란 굶이 요즘 말로 하면  
 “맑은 가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를  
 닦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가난해져야 하  
 고, 맑은 가난인 청빈가풍이 갖추어져야  
 만 제대로 수행가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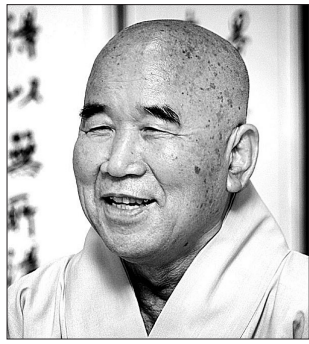
몸이 가난한 것은 가난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진실로 가난한 것이다  
 몸이 가난해도 능히 도를 닦는다면  
 이름하여 청빈한 도인이라 하리라

## “수행자는 무심의 낚시꾼이니”

###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수행자는 낚시꾼입니다. 어떤 낚시꾼이  
 나 하면 화두는 낚시 바늘이 되고 무심으  
 로 밀밭을 삼습니다. 까마득한 천 길 낭  
 떠러지 위에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 있다  
 해도 미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높은 곳  
 에서 내려다봄에 바닥까지 흰히 꿰뚫어  
 보이는 연못입니다. 너무나 맑고 투명해  
 어떠한 눈 속임수도 통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철저한 무심이라는 밀  
 밭이라야 주인공(神魚)신어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분별하는 마음이  
 일렁이면 곧바로 숨어버립니다. 결코 벗  
 어날 수 없는 예리한 일념 화두의 낚시 바  
 늘을 드리우고 모든 것과 혼연일체가 되  
 어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노라면 맑은 달빛에 때로되어 아  
 무것도 눈치 채지 못한 신어는 비늘을 번  
 뜰이며 물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유유히 헤엄을 치다가 의심스럽거나 경  
 계할 만한 것이 없다고 여긴 신어는 드디  
 어 먹이를 덥석 물게 됩니다. 그 때를 놓치  
 지 않고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순식간에  
 낚아채 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일념화두  
 의 비늘에 걸려 솟아오르며 푸득 거리는  
 모습에서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무애자  
 재한 해탈의 한바탕 춤사위를 보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푸득 거릴 때마다 달빛을 머금  
 은 물방울이 장엄하게 아득한 수면위로  
 떨어져 내립니다. 이는 생사윤회와 번뇌  
 망상의 미운에서 벗어나 광명으로 충만  
 되는 환희의 순간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법석은 모든 대중이 90일 동안  
 주인공 신어를 낚아 올리기 위해 부단히  
 애 쓴 것에 대한 각자의 살림살이를 판단  
 해 보는 자리입니다. 수행의 묘는 명철한  
 직관력으로 깨닫기 전에는 멈추지 않겠다  
 는 용맹심에 있습니다. 비워낼 것은 철저  
 하게 비워내서 가마솥에 열음을 던져 넣  
 은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 말고 섬세함에  
 있어서는 바늘을 던져 겨자씨를 맞추는  
 정확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미진한 것  
 이 있다면 오늘 해제는 마음을 다잡는 의  
 식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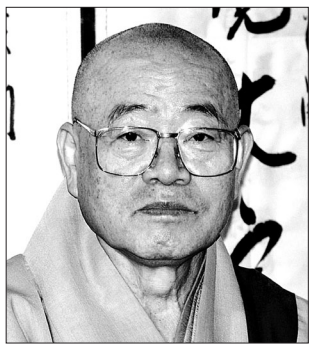
## “바로 알지 못하면 해제 아니다”

###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解制는 只了一大事니 打破漆桶하고 發  
 明眞性하야 上報四重恩하고 下濟三途苦  
 가 只在當人手中이요, 不在於佛하며 不在  
 於祖하니 大衆은 且道하라. 還可了事耶  
 아? 於此에 不實인댄 云何解制리요.

해제는 다만 일대사를 마침이니 칠룡을  
 타파하고 진성을 발명해서 위로는 네가지  
 중한 은혜를 갚고 아래로는 삼악도의 고통  
 을 제도하는 것이 다만 당신의 수증에 있  
 음이요, 부처님에게 있지 아니하며 조사에  
 게도 있지 아니함이니 대중은 또 일러라.  
 도리어 가히 일을 마쳤는가? 이에 바로 알  
 지 못했음진댄 이른저찌 해제라 하리요.

頌曰  
 人人本有眞法身은 亦無去來不生滅이  
 로다.  
 虛明自照無障礙하니 自度他度淨國土  
 로다.  
 사람마다 본래있는 진법신은 또한 오고  
 감이 없음뿐만 아니라 생멸도 없도다. 허  
 명이 스스로 비취 장애가 없으니 자신도  
 제도하고 다른 이도 제도하여 국토를 청  
 정케 하리라.  
 人生百年이 只在 一息之間이어늘 之南



之北에 有何急事오, 於此末世에 閑鬧遊  
 戲라가 莫作街頭에 獨坐歎息之人하라.

인생백년이 다만 호흡간에 있거늘 남쪽  
 으로 가고 북쪽으로 감에 무슨 급한 일이  
 있으리오, 이 말세에 등한이 놀다가 거리  
 에 홀로 앉아 탄식하는 사람이 되지말라.

頌曰  
 衲子正坐靜默하여 無上大道於此成이  
 로다  
 無說而說眞妙法하야 度脫萬類成太平  
 이로다.  
 계승으로 이르시되  
 남자가 정좌하여 묵묵함이며, 위없는  
 대도를 이에 이루었도다. 진실한 묘법을  
 설함없이 설해서 만류를 제도하여 태평한  
 세상을 이루도다.

## “일체 번뇌 다 떨어져 시방세계 비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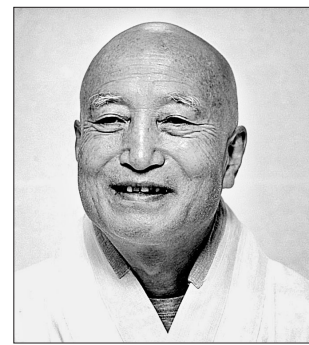
###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공부가 성숙되어 일 마친 사람이야 세  
 월이 가고 오는데 무슨 상관이랴 마는 그  
 령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할 일이 많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아까운 시간들이다.  
 다이아몬드를 섬으로 주고도 살수 없는  
 귀한 시간들이 가고 있다. 부질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 말고 진실(眞實)을 향해 갈일  
 이다.

부처는 무엇이고 법(法)은 무엇이며 도  
 (道)는 무엇인가? 영원히 순수하여 조작이  
 없는 것이 부처요, 일체 번뇌가 다 떨어져  
 시방세계를 환히 비추는 것이 법이요.

일체의 탁하고 더러움이 다 쓰러져 전  
 후제(前後際)가 끊어져서 홀로 드러나 당  
 당하고 분명하여 법(法)과 법(法)이 상응  
 (相應)하고 티끌과 티끌이 해탈하여 영겁  
 (永劫)토록 자유(自由)하고 걸림이 없는 도  
 리더라.

말인 즉은 부처와 법과 도가 셋으로 나  
 뉘지만 실은 하나다.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완전한 생활(生  
 活)은 아집(我執)이 사라지고 탐욕이 없어  
 지며 다름도 없어지고 명성(名聲)과 이익  
 (利益)을 위해 살지 않으므로 완전한 사람  
 이요. 진실한 사람, 즉 부처다.



이럴 때 내재(內在)의 연꽃이 활짝 피는  
 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경(究竟)이며 우  
 리가 성취(成就)해야할 경지이다. 여기에는  
 희망도 고통도 미래도 지혜도 미련함  
 도 탐진 오욕도 없다.  
 오로지 당하(當下)에 꽃이 피는 고평하고  
 상서로운 곳이다.

朗朗輝光照大千  
 東西南北常安然  
 諸般所作皆空空  
 蕩蕩無碍現古風

휘영청 밝은 빛이 대천세계를 비치고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도 편안하여라.  
 하는 일 모두가 텅 비고 비어 행 트여 걸  
 림 없이 옛 가풍을 드러내더라.

## “본질적인 참선 공부를 생활화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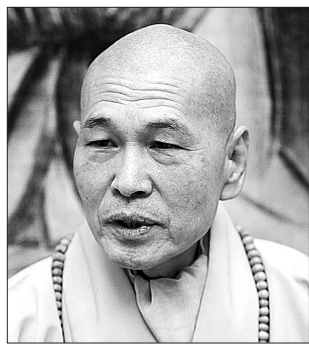
###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영산회상에서 대중들에게 연꽃을 들어  
 보이시며! (靈山會上舉拈花)  
 다자탑 앞에서 자리 한 칸을 나누어 앉  
 으시며! (多子塔前分半坐)  
 임멸직후 두발을 곱 밖으로 내 보이심  
 이여! (沙羅雙樹下擲示雙趺)

이를 두고 세존께서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하신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고 합니  
 다. 그러나 불타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 앞에서 삼  
 처전심이 무슨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각자의 욕망성취에 끝없이 바쁜 세상입  
 니다. 수행과정도 없는 우리가 선각자들의  
 깨달은 결과나 그분들의 행적을 또는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서적들을 자습서처  
 럽 보고 베끼고 의우고 흉내 내는 것은 한  
 계가 분명합니다. 하물며 시공을 초월한  
 창조적 변용으로 요의중생 하기에는 턱없  
 이 부족합니다. 자습서 베끼는 어릴 적 공  
 부가 생각납니다.

이럴 때 일수록 근원적인 공부에 충실  
 해야합니다.  
 깨침은 있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라는 자각각타 각행원만(自覺覺他 覺行圓



滿)은 대승불교의 핵심이 아닙니까?  
 일체중생 실유불성이며 그대로가 부처  
 라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적고 교리행과를 지식으로만 느끼고 자증  
 자오(自證自悟)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  
 하는 원력이 없거나 미약해서 문제입니다.

해제기간이라해서 방학을 맞은 학생들  
 처럼 자유로워지는 것은 괜찮지만 실수해  
 라는 안 됩니다. 선원 밖 세상은 너무 복잡  
 하고 어려워 모두를 받들어 모시는 자세  
 여야지 작은 경험을 안다는 뜻이 여유 부  
 리면 안 됩니다. 독재자들처럼 자기 위상  
 만 높게 책정하여 대중을 외면하는 불통  
 자가 되면 안 되듯이 설사 최상의 간화선  
 자리 할지라도 자기 위상을 스스로 훼손  
 하면 전대중과 상식도 불통하는 오만한  
 자가 됩니다.